

光州日那



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 222 - 8111 kwangju.co.kr 제20353호 1판 (음력 9월 21일)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

혁신도시 편의시설 속속…교육·의료시설은 부족

은행·식당 등 736곳 들어서 이주민 불편 상당 부분 해소 어린이집·학원·병원은 턱없이 모자라…학부모들 큰 불만

공사 등은 이미 빈 자리가 없어 더는 아이

최근 민간어린이집 두 곳이 문을 열어

숨통이 트였지만 문제는 어린이가 유독

많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정원이

가득 차는 경우가 많아 심심찮게 '원정 육

를 받지 못하고 있다.

나주 빛가람혁신도시(이하 빛가람동)가 374명이며 우정사업정보센터, 한국전력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.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주변에 오피스텔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확충돼 초기에 겪어야 했던 직원과 이주민들의 불편은 상당 부 분 해소됐다.

2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 지 빛가람동에 들어선 병원과 약국, 은 행 지점, 학원 등 각종 편의시설은 736곳 인 것으로 나타났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▲병원 10곳 ▲약국 3곳 ▲식당 195 곳 ▲편의점 42곳 ▲분식점 25곳 ▲주점 37곳 ▲카페 32곳 ▲치킨집 16곳 ▲금융 17곳 ▲학원 31곳 ▲제과점 11곳 등이 다.

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의 이주도 늘면서 최근에는 성형외과가 문을 여는 등 빛가 람동의 상권이 틀을 잡아가고 있다. 마트 와 편의점이 생겨 실생활용품의 구입도 쉬 워지고, 법무사 사무실(7곳) 등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.

하지만 아직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은 부 족한 실정이다.

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인 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빛가람 동의 인구는 1만7924명이지만 학교 유치 원과 어린이집의 정원은 1144명이고, 이 전기관의 어린이집 정원도 438명에 불과

학교 유치원 3곳의 정원은 391명인데 이 미 정원을 1명 초과해 340명이 다니고 있 다.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 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이 운영하고 있는 어 린이집 정원은 438명인데, 현재 인원은

■ 빛가람 혁신도시 편의시설

- 5/10 704/10/10/12			
命 금융	17	🏂 분식점	25
🛑 병원	10	🥛 주점	37
☞ 약국	3	🦈 카페	32
🐃 학원	31	🥯 치킨집	16
🥣 식당	195	🥌 제과점	11
🗿 편의점	42	※ 9월 30일 현재	

아'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.

또 최근 병·의원이 모여 있는 메디컬빌 딩이 들어서고는 있지만 병·의원은 치과 와 내과 중심이며 소아과는 한 곳뿐이어 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. 병원 수가 적다 보니 약국도 3곳에 불과하다. 병원의 진료 과목 편중도 심각

현재 31곳의 학원이 운영 중이지만 태 권도와 음악, 미술 등 예체능 중심이며 영 어와 수학 등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, 번화가를 중심으 로 몰려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. 광 주 학원계 등에서 빛가람도시 내의 수요를

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개업이나 분원 개설을 꺼리기 때문이

주민 서부광(43)씨는 "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3월에 이미 차 버 려서 6살, 2살 아이들을 4개월 동안 옆 동 네 아파트 단지에 맡겨야 했다"면서 "전 문 입시 학원이 전혀 없어 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"고 하소 연했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

'2016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' 참석차 방한한 미국, 일본의 한인 청년들이 광주시 광산구 새날학교를 찾아 벽화를 함께 그 리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. 대회 참가자들은 검사, 의사, 디자이너, 정보통신 개발자 등으로 각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 2~3세로, 행사 기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키워 거주 국가와 고국의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.

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 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을 물었다. 확보에 나섰다. 사실상 강제수사 움직임에

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

♪♪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~

•일시: 2016. **10, 23**(일) 08:00~ • _{장소} : 모교 운동장

• 전화 : (062)**374**-6685

대 촌 중 학 교 총동문회장 차 희 준

검찰, '미르· K스포츠' 수사 최순실 통화 내역 확보 나서

문체부 관계자 2명 소환조사

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· K스 포츠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이 이 재단의 설립 경위를 확인하고자 문 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20일 소환 조사 〈관련기사 3면〉

서울중앙지검 형사8부(한웅재 부장검

사)는 재단 설립 허가를 관장하는 문체부의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 로 불러 조사했다.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 본감시센터가 '비선 실세'로 지목된 최순실 (최서원으로 개명)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등을 고발한 지 약 3주 만이다.

또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(최서원으로 개명)씨의 통화 내역 나선 것으로, 재단 측과 최씨의 연관성 파 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.

검찰은 두 재단 관계자의 전화 통화 조 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. 대상자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 로 알려졌다.

두 재단과 관련해선 거액의 대기업 출연 금을 모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 냐는 의혹과 함께 문체부의 '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', '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' 의혹 등이 제기됐다.

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를 상대로 두 재단 이 어떻게 설립됐는지, 설립 과정에 문제

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방향도 관심을 끈 다. 최씨는 딸 정유라씨와 함께 외국에 체 류 중이며 출국 행선지는 독일로 알려졌 다.

P_{assion [열정],} Vision [꿈], **T**ruth [진리]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!! 학 부 (062) **605-1114** 대학원 (062) **605-1115**

광주 취업자 1년 새 1만2000명 줄었다

취업자 절반 수도권에 몰려

올해 3분기 취업자 수의 절반이 수 도권으로 몰린 가운데 광주·전남 지 역에서 일을 찾은 수는 조금 늘거나 되레 줄었다.

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지역별로 취 업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취 업자수 2655만4000명 중 50.1%인 1329만1000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.

경기도가 24.9%(661만2000명), 서 울 19.4%(514만1000명), 인천은 5.8% (153만 8000명)로 집계됐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3%, 인천은 2.5%가량 늘었다. 서울은 0. 3% 줄었다.

수도권 이외 지역의 3분기 취업자수 를 보면 경남(169만7000명), 부산(166 만1000명), 경북(143만4000명), 충남 (126만8000명), 대구(125만1000명)에 서 100만명을 넘겼다. 이밖에 전남(95 만5000명), 전북(93만6000명), 충북 (84만6000명), 대전(77만6000명), 강 원도(76만7000명), 광주(74만1000명), 울산(57만5000명), 제주(35만6000명) 순이었다.

지난해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감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제주도로, 5.3% (33만8000명→35만6000명) 증가했다. 반면 광주 지역은 75만3000명에서 74 만1000명으로 되레 1.6% 감소했다.

취업자의 연령대를 보면 전국적으 로 40~49세(666만3000명), 50~59세 (612만6000명), 30~39세(562만8000 명), 60세 이상(408만5000명), 20~29 세(379만6000명) 등의 순이었다.

/김대성기자bigkim@kwangju.co.kr

제42회 총동문체육대회

·일시: 2016, **10, 22**(토) **09:00** ·장소 : **모교 운동장**(풍향대) ·전화: 062)**520-4555**

광주사범 · 사대 · 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우 홍 민

우리 함께 해요



광주사랑 문화시민운동 2PH! 광주, 참 증이유 활기차서 좋아요 자랑해도 좋아요 나눔·봉사 실천하기어린이·청소년 격려하기 광주 역사문화 이해하기 생활 속 인권 실천하기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이웃간 배려와 칭찬하기 나부터 질서·청결 참여하기 • 친구, 광주 초대하기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하기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광주!